

■ 마중물

◦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방향성을 갖게 한다.

- 아벨/ 살해당했지만
- 에녹/ 자녀 잘 키우기 위해 노력했지만
- 노아/ 묵묵히 방주를 지었지만
- 아브라함/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
- 사라/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지만
- 이삭/ 우유부단하고 무능했지만
- 야곱/ 사기꾼이었지만
- 요셉/ 안하무인이었지만
- 모세/ 살인자 도망자였지만
- 리합/ 이방인 기생이었지만
- 기드온/ 두려움 많고 자기밖에 몰랐지만
- 바락/ 소심했지만
- 삼손/ 쾌락에 모든 것을 허비했지만
- 입다/ 자만했고, 경솔했지만
- 다윗/ 사울에게 쫓겨 다녔지만
- 사무엘/ 균형이 있는 사역자
- 무명의 여자 등

◦이들의 공통점?

첫째,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.

11:1-2(메시지) “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.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
이야말로,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. 믿음은 볼 수 없는
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.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
준 것이,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.”

둘째,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되었다.

12:1-2 “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
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
당한 경주를 하며 2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
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
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”

“(믿음의 행위로)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”(메시지)

■ 부담감 또는 거부감

◦‘이들처럼 삽시다!’

-노아니까, 아브라함이니까, 모세이니까 ...

◦고(故) ○○○(29) 공군 소령

(Navi Choi, [거부할 수 없는 진]. 요한복음 18:1-11 묵상)

-기독교인, 군인

■ 흘러보내야 할 생명수

◦ 다섯 명 모이는 교회

- 스스로 찾아온 노인

‘더 이상 예배당에 나오기가 어렵다’

“제가 이 일을 보자고 이 자리에서 삼십 년을 보낸 모양입니다. 노인 몇 사람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였던 것이 그냥 헛것이 아니었습니다.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생각으로 제 일을 하였습니다. 목사로서, 먼저 가신 그분이 참으로 고맙습니다.” (페이스북, [문 목사 아포리즘] 2022.4.10.)

 **삶을 드리기 위하여** 

말씀/질문

오늘 설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다짐, 또는 질문을 기록해봅니다.

기도

설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한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하여 기록하고,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.